

영국, 농업용수 오염대책 강화

영국 정부는 농업용수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지난 6월 16일에 열린 회의에서 영국 환경부장관 Elliot Morley는 수질오염의 확산에 대해 수질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하였다. 이번 회의 결과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예를 들어 하수와 산업폐수로 인해 야기되는 수질오염은 보통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높아 감시나 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오염원에 의해 발생하는 수질오염의 확산은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오염원들은 개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집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원은 환경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농업과 수질오염

수질오염의 요소로는 도로 상의 자동차 세차와 같은 행위, 오염된 토양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오염의 확산의 원인인 모든 종류의 제초제 등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일 위협요소는 농업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토지의 70%에서 농업이 이루어지고, 농업에 반드시 필요한 비료와 생장촉진제와 같은 영양제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의 확산을 고려한다면 농업이 가장 큰 위협요소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영국의 수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 수자원의 인 오염(phosphate pollution)의 40~50%가 바로 걸러지지 않은 채 흘러나오는 농업 용수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또한, 영양제의 과도한 사용은 유해 조류의 급속한 증식(toxic algal blooms)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녹조(Green Algae)와 같은 조류의 급속한 증식은 모든 어류와 수생식물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산소 고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식수와 재활용을 위한 수자원의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수질관리 시스템의 형성

오염의 확산을 줄이면 청정한 수질관리시스템과 안전한 해산물, 깨끗한 식수와 생활용수, 관광과 여가의 증가와 같은 여러 혜택을 볼 수 있다. 수질오염 확산의 방지는 영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다.

영국 환경식품농촌개발부(DEFRA)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영농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영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인, 환경단체, 기업과 다른 이익단체에 수질오염이라는 단일 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 배출되는 질산염의 70%와 인산염의 40% 이상은 농업에서 비롯된다.

출처: 영국환경식품농촌개발부
(주대진 jjudj76@empal.com 018-394-2790 지역아카데미)